

무주구천동 어사길 복원사업 완료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최선

어사길 입구~백련사 입구 총 4.6km 구간... 편의시설 제공·옛길 정취 느낄 수 있어

무주군이 무주구천동 계곡의 33경 비경으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구천동 어사길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탐방객들을 맞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안심대~백련사 입구 1.2km 구간을 마무리해 기존 완료한 어사길 입구~안심대 3.4km와 총 4.6km 구간에 이르는 구천동 어사길 복원사업을 마쳐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락객들을 맞는다.

특히 복원된 어사길은 구천동 33경 중 16경의 하나인 인월담부터 32경인 백련사까지 이르는 계곡으로 단장돼 있어 여름철의 무성한 수풀과 맑은 물로 삼박더위를 잊게 해 주는 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

여기에 숲이 주는 청아함과 계곡의 정취마저 느낄 수 있어 사시사철 힐링코스라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20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과 아울러 지난달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 선정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어사길은 목교 2개소를 비롯한 데크로드와 데크계단, 목재데크, 안내판 등을 설치해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예전 어사길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무주구천동 어사길.

수 있도록 했다. 복원사업에는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됐다.

군은 그간 복원사업을 탄력성 있게 추진했으며, 공원의 특색을 그대로 살려 옛길다운 면모로 개발하기 위해 역점을 기울였다. 군은 22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휴가철 관광객 맞이 위한 어사길 탐방과 주변 관광지 시설 현장을 둘러봤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사길 복원사업은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어사길

개설 구간을 환경친화형 목재데크와 아자메트 등을 설치,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탐방과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어사길 옛길 복원공사로 향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바라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가 무주구천동에서 이웃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자들을 벌하고 사람의 도리를 바로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고3·교직원 예방접종 순항... 50대는 24일까지 예약 가능

진안군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등 35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2학기 전면 등교 및 안전한 대입 지원시업을 대비해 진행하며 교육청과 예방접종센터 간 일정 조율로 오는 30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50대 연령층 접종은 오는 24일 18시까지 인터넷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접종일정은 ▲55~59세는(62~66년생) 7월 26일부터 8월 28까지 모더나 백신, ▲50~54세는(67~71년생)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모더나 백신, ▲

60~74세 예약취소자는 이달 31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 ▲교육·보육종사자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 ▲기타 대입 수험생과 18~49세 대상은 8월에 접종계획이며 백신 종류는 미정이다.

예약방법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전화예약(1339, 430-8503, 8018, 8019)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모든 연령층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접종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22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김창열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 강화 협업부서 실무회의'를 가졌다.

진안군,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협업부서 실무회의

진안군은 22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김창열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 강화 협업부서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라북도 11개 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을 시행함에 따라 어느 때 보다도 방역기본수칙 준수 등 방역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코로나 대응 협업부서 13개 과 17개 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됐다.

각 협업부서에서는 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나는 물놀이 피서객과 관광

객들의 방문에 대비하여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진안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이며,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과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창열 부군수는 "현재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정국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각 해당 실과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적극 안내하고, 폭염 대비와 물놀이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군민의 안전 확보·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의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5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신갑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민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19일부터 21일까지는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관순 의원(나 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태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건의를 촉구했다.

김광수 의장은 폐회를 통해 "우리 진안군의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진안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힘드시더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56회 마령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 취소

진안군 마령면체육회(회장 정환오)는 22일 오는 8월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56회 마령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민의 날 취소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돌파 감염 등 코로나19의 심각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체육회 이사회 및 총회, 각종 관내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민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해 결정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슬기로운 탄소중립 여름생활' 캠페인

장수군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전개

장수군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수군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장수군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이란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자연 보호를 위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지속가능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현재, 한국 정부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장수군도 이에 발맞춰 찾아가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행사의 일환으로 22일 장수군청 앞 광장에서 펼쳐진 아나바다 행복 나눔 장터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온라인 '온실가스 1

인 1톤 줄이기' 서약 접수, 재활용품(우유팩, 폐건전지) 키친 타올 교환 및 기타 환경과 관련된 장수군 정책 홍보를 펼쳤다.

또한 8월까지 '슬기로운 탄소중립 여름생활'이라는 주제로 개인컵 사용, 양산 사용, 대기전력 차단, 피서지 탄소흡수원 보호 등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생활수칙을 홍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사랑장학금 164명 지급 완료

진안군 우수 인재 육성과 교육지원 진흥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진안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22일 특별 장학금 지급을 끝으로 올해 장학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장학금 선발은 지난 1월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를 통해 접수 신청한

학생 총 204명 중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164명(고등학생 21명, 대학생 143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장학금 총 1억9,800만원을 지급했다.

분야별로는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6

월3일 실시) 성적우수자에게 등수별로 30만원/50만원/100만원씩 차등적으로 13명에게 840만원 지급, ▲일반장학생(성적우수자)은 139명을 선발하여 1억 8200만원, ▲복지장학생은 고등학생 8명, 대학생 4명을 선발하여 77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당초 선발분야였던 특기장학생은 접수 미달로 이사회에서는 일반장학생을 추가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